

獨 · 佛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 의미와 시사점

최근 독일 · 불란서는 공동역사교과서 발간(7.10 최종본)을 통해 양국간 과거사 인식차를 극복하고 화해 ·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는 바, 同 공동 역사 교과서의 편찬 의미와 시사점을 검토

* 공동 역사교과서(현대사)는 5.4 초판 발행, 교정 작업후 7.10 최종본 발간예정

1.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 경위

- 獨 · 佛은 1차 대전이후 역사적 舊怨 해소 차원에서 공동역사교과서 편찬을 타진했으나, 종교 · 식민지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인식차로 무산
- 1963년 獨 · 佛 화해협력 조약인 「엘리제 조약」 체결이후 양국 도시간 자매결연,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양국민간 상호이해 증진
- 2003. 1 「엘리제 조약」 체결 40주년 계기 「독 · 불 청소년 의회」에 참석한 양국 청소년 대표들이 「시라크」佛 대통령과 「슈뢰더」獨 총리에게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을 건의하여 성사

2. 교과서 구성 형식 및 주요 쟁점사항

구성 형식

-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교과서 분량의 20% 정도는 객관적 기술 위주로, 80% 정도는 지도 · 도표 · 사진 등 참고자료를 수록,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도록 서술

* 교과서는 제 1권 1945년 이후 현대사, 제 2권 르네상스-2차대전(2007년도 발간 예정), 제 3권 : 중세사 등으로 구성

- 역사적 사건에 대한 獨 · 佛 양국의 인식을 굳이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지않고 「독일측 관심 · 불란서측 관심」 등으로 구분하여 공동 교과서에 그대로 명기, 학생들이 이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구성

- 교과서 편찬은 03년 설립된 「독불 공동역사교과서 편찬위」의 집필 지침에 따라 민간 출판사(獨 Klett社, 佛 Nathan社)가 교과서를 집필하고, 이를 편찬위원회가 재차 감수

* 편찬위원은 양국 공히 8명으로 구성하되, 전공분야는 물론 사회적 명망·언어 구사력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

주요 쟁점사항

- 양국간 공산주의·냉전·식민지 해방·2차대전후 미국의 역할 등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존재

< 양국간 과거사 인식차 사례 >

 프랑스		 독일
2차대전 당시 공산당의 레지스탕스 활동 등으로 긍정적 평가	 공산주의	동독 정권 수립·베를린 봉쇄·동독 민중봉기 유혈진압·베를린 장벽 건설·소련의 위협등 부정적 이미지
47~89년 벌어진 동·서방 진영간 대결로 규정	 냉전	일부 학자는 47~62년(쿠바 미사일 위기사건 발생)시기에 존재했던 동·서방 진영간의 위협한 갈등으로 한정하여 해석
알제리 전쟁(54~62년)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식민지 해방에 미온적 입장	 식민지 해방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를 상실, 탈식민지 논쟁과는 무관
「드골」정권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서양 정책을 패권주의 상징으로 이해	 미국의 역할	전후 미국의 지원과 민주주의 정착 등에서의 미국의 역할 등을 호의적으로 평가

3. 평가 및 시사점

- 이번 獨·佛 공동 역사교과서는 2차 대전 이후 계속된 독일의 과거사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2차대전 이후 양국이 지속적으로 쌓아온 신뢰의 결실로 평가

- 이러한 신뢰는 양국이 ‘유럽사에 대한 이견과 논쟁점에 관한 합의’(51년) 및 역사교과서 수정 지침(91년) 채택 등과 함께 대학을 통한 공동연구를 지속,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 조율에 주력하고
 - 또한 ‘獨·佛 청소년 협회’를 설립(63.7),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청소년 의회·각종 문화이벤트 등을 통해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국 역사인식에 대한 청소년층의 이해 기반을 확대한 결과
 - * 64년 이래 양국 정부의 재정지원(04년 2,040만유로)하 매년 5-10만명의 양국 청소년이 同 프로그램에 참여
 - 우리로서는 이번 獨·佛 공동역사교과서 사업이 독일의 정직한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對 주변국 화해·협력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 독일의 자기비판적 역사교육과 일본의 역사교육 및 인식을 비교,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반성을 촉구하고
 - * 「뮐러」 뮌헨대 교수(공동역사교과서 편찬위원) :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과거사에서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임(5.18)
 - 獨·佛 양국이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공동역사교과서 편찬 기반을 조성했던 점을 감안, 韓·日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겠음
 - * 2005년도 韓·日 공동미래프로젝트(34개) 사업에 3,454명(한국 1,862명 / 일본 1,592명) 참가
- ⇒ 同 공동역사교과서 서술에 있어 獨·佛간 갈등과 쟁점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기술의 방법 등은 韓·日 공동역사연구에 참고할 필요

※ 붙임 : 제 2기 韓·日 공동역사연구 추진 경과.

//끝//

< 붙임 >

제 2기 韓 · 日 공동역사연구 추진 경과

- 04.12.17 韓 · 日 정상회담(이브스키)시 “제 2기 역사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합의
 - * 1차 공동연구(02.3-05.5) : 19개 주제에 대해 총 55편의 논문 발표
- 05.6.20 韓 · 日 정상회담(서울)시 “제 2기 역사공동연구”시행계획에 대략적 합의
 - * ① 교과서위원회 신설 ② 연구 결과를 교과서 편수 과정에 참고가 되도록 정부주도의 적극적 노력 ③ 회의 결과 기록 유지 ④ 연구과정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 05.10.27 韓 · 日 외교장관회담(동경)시 제 2기 역사공동연구의 시행계획 (TOR) 합의
 - * 교과서위원회 운영관련 Concept Paper는 현재 협의중
- 05.12.29 우리측 제 2기 연구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수여
 - 조광위원장(고대 문과대 학장) 포함 16명
- 06.1.16 우리측 공동연구위원 1차 내부 전체회의 개최
 -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총간사 선임
- 06.2.3 韓 · 日 연구위원장간 「시범 회의」 개최(동경)
 - * 교과서 위원회는 한일관계사 기술에 대한 권고안 작성을 추구기로 합의
- 06.2월말 일측은 공동위원장으로 ‘오코노기’게이오大 교수 내정했으나 연구위원 선정은 지연
 - * 4개위원회(고대사, 중근세사, 근현대사, 교과서)중 중근세사를 제외한 3개 위원회의 위원만 인선
- ※ 현재 우리측은 일본의 연구위원 인선 조기완료 및 공동연구 공식 발족을 지속 요청 중 //끝//